

폐아스콘 사용 확대를 위한 제언

Suggestions to expand the use of waste asphalt concrete



노성환 Seong-Hwan Noh
한국골재산업연구원 품질검사원,
우리학회 이사
E-mail : roadqa@naver.com

한해 동안 폐아스콘이 1,580만톤 이상(2020년 기준) 발생한다. 이를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마다 과다 적치되어 해소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정부의 재활용 정책 의지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폐아스콘을 가장 부가가치가 높게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순환아스콘 원료로 이용하는 것이다. 양질의 순환골재로서 활용할 수 있고 순환골재에 붙어 있는 아스팔트를 회복시켜 천연재료처럼 사용이 가능하여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일거양득이기 때문이다. 또한, 무한대로 선순환 재활용이 가능하며 10년, 20년 이후에도 쓸 수 있는 비축된 미래의 고급자원이기도 하다. 장점과 효과를 전부 열거하지 않더라도 침출수 오염예방, 천연골재 대체편익, 매립절감, 탄소저감과 도로 등 국가 기간산업에 이용되는 순환아스콘은 정부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더욱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가격이 급등하여 폐재에 잔류되어 있는 아스팔트는 그 경제적 활용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절반 이상만 활용되어도 수천억 원의 외화 대체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효과적인 순환아스콘 원료로 대부분 이용되지 못하고 단순 파쇄하여 재활용가치가 낮은 저급용도로 처리하고 있거나, 신속하게 배출할 목적으로 콘크리트와 혼용하여 파쇄 또는 혼합물로 처리된 경우 폐아스콘 본래의 선순환 재활용 가치로서의 기회는 소실된다.

우리나라는 순환아스콘 정의를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25%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따라서 순환골재 25% 미만 사용 생산품이 활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업체는 최소한의 기준을 상회하여 의무사용제도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어 폐아스콘 사용확대 및 촉진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폐아스콘 발생량은 매년 5% 이상(최근 5년간 평균)씩 증가하지만 건설경기 부진으로 순환아스콘 수요는 점점 감소



하고 있어 처리업체의 폐재처리에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추세라면 앞으로 원활히 처리할 수 있다는 기대도 불확실하다.

순환아스콘으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대중적인 보급 체계로 제도를 개선하고, 대량 혼합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 가중치를 부여하여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도록 유인하여야 할 것이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관련 회의 때마다 사용자인 수요기관과 공급자측 중간처리업체의 대립은 품질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확대가 어렵다며 반복된 주장만 수없이 되풀이 하여왔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기준을 상향시키고, 사용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결코 나아질 것이라고 보여지진 않는다. 규제를 통해 기능을 강화시키면 시장품질을 역행하는 편법만 확산될 뿐이다.

정부는 폐아스콘 사용을 재활용제품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강제 규정인 '순환아스콘 의무사용'이라는 특별한 제도까지 만들었지만, 발주기관이 제도에 따르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굳이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도 한몫 한다고 보여진다. 이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 정책 수용성에 따라 재활용 성공의 열쇠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언론 보도에서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나 불량 순환골재 사용에 대하여 수없이 소개되었고 환경단체의 감시도 매우 엄격해졌다. 무엇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 요구수준은 한결 높아졌다.

미래 사회의 화두는 단연 탄소중립이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하나가 순환경제의 활성화다. 친환경 공정개발, 원료의 재활용 및 재사용,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 제품 생산, 에너지 투입 최소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자연 친화적인 재활용처리에 선제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담당 편집위원 : 전세진(아주대학교)

